

2024 설날가정예배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간구합니다.

개회 / 인도자,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기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복독 / 말은이, 창세기 6장 5~9절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설교 / 말은이,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가족'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

입니다. (5~6절)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오직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비록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살았던 노아처럼, 먼저 믿은 자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8~9절)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내와 세 자녀와 며느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을 책임졌듯이,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찌 방주 안에 나만 혼자 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온 가족들이 노아의 본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가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 설교자

덕담을 나누는 시간 / 가족 중에

지난해의 좋은 일을 나눕시다. 새해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찬송 /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폐회 / 다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